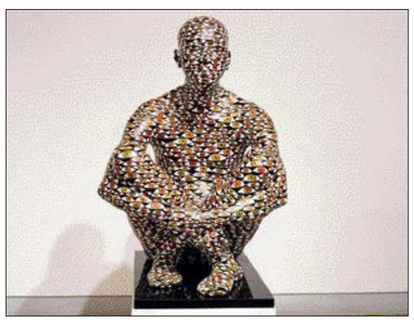
동아시아 예술 경계를 허물다

광주시립미술관 7월 28일까지 '경계'전

한·중·일·대만 현대 조각가 67명 초대



이하림 작 'ai'

린원하이 작 'hands of creating'

김주연 작 '도서관'

시인 함민복씨는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나와 세계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리라"('꽃' 중에서)고 노래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오는 7월28일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경계'전을 마련했다.

이들 국가의 현대 조각가 67명을 초대해 각국의 미술 흐름과 '아시아성'을 엿볼 수 있게 했다. 대형 작품이 많아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실과 미술관 앞 야외에도 조각,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미국과 유럽의 예술과는 다른 문화적인 전통을 계승한 동아시아 4개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참여 작가들의 국제 교류를 위해 마련된 전시이다.

특히 각국의 현대 입체미술을 주도하고 있는 30~50대 젊은 작가들이 대거 참여해 눈에 띄는 작품이 많다.

한국의 최규철(전남대 교수), 김인경(조선대 교수), 김황록(동국대 교수), 정대현(서울시립대 교수), 고근호, 김숙빈, 박민규, 손봉채, 윤익, 장지아, 전인식씨 등 41명이 참여했다.

김숙빈 작 'power'

또 일본의 미츠유키 타케다(타마대 학장), 고지 이시가와(큐슈대 학장), 마쯔오 이찌로, 미쯔유키 타케다, 신조 요시히로, 야마모토 타카아키, 카쿠코, 쯔다 미쯔오, 코지로 니시무라 등 12명이 작품을 선보인다.

대만에서는 니짜이친 전국립대만미술관장과 린원하이 동해대 교수 등 12명, 중국에서는 짜오춘야씨 등 2명이 참여한다.

김숙빈씨는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손을 뻗은 근육질 남자를 표현한 'power'를 전시한다. 각이 진 근육과 기운 찬 움직임을 통해 야성과 남성성을 상실한 현대 사회를 비판한다.

또 윤익씨는 미술관 앞 야외에 철제로 만든 새장 속 공간을 표현한 설치 작품 '무제'를 전시한다.

이밖에 신조 요시히로는 오래된 나무 둥치에 잘 절단된 나무 기둥을 세워 자연스러움과 인위적인 것들의 대비를 보여주는 'faraway'를 전시한다.

린원하이는 거대한 손바닥 모형을 전시장 바닥에 설치한 'hands of creating'을 출품했다.

전시를 기획한 변길현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아시아 각국의 젊은 미술인들 간의 교류를 통해 미술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양적인 사유를 느낄 수 있는 전시이다"면서 "현대 미술의 화두인 경계를 넘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한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다"고 말했다.

문의 062-510-014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비주류 출신 지도자 희생되는 이야기 노 前대통령 탄핵 때 구상…가슴 아파"

'한겨레문학상'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주원규씨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 주원규(34·사진)씨가 제14회 한겨레문학상(상금 5천만원)을 수상했다. 당선작은 장편소설 '열외인종 잔혹사'.

'열외인종 잔혹사'는 노숙자와 비정규직 여성, 극우파 노인, 게임 마니아인 청소년 등이 각기 다른 일로 코엑스 몰로 모여들고 그곳에서 양머리탈을 쓴 수수께끼의 무장 집단과 마주쳐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소설이다.

심사위원들은 "' 열외인종 잔혹사' 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한 부분씩 떠맡고 있는 인물들을 잘 형상화해낸 점, 현재 시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한 장소로 몰아가면서도 형식상의 오류가 없다는 점, 작가가 의도하는 메시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 등이 돋보인다"고 평했다.

주씨는 28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다소 생뚱맞고 일탈적인 내용이라 상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기대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의외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소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 구상했던 작품이에요. 노 통 자신이 비주류이자 크게 보면 '열외 인간' 아니었겠습니까. 이 소설에서는 열외 인간들의 지도자로 떠받들어진 노숙자가 결국 희생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는데,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보면서 그 결말이 생각나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주씨는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다시 신학대에 들어갔으나 양쪽 모두 졸업하지는 못했다.

2003년에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칼'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했으며 2006년에는 광주일보 출신 작가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제2회광주일보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소설을 쓰면 마음속에 품었던 안타까움이나 분노 같은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 놓을 수 있어서 좋다는 주씨는 내성적인 성격탓에 문단과는 아무런 끈을 맺지 않다 지난 4월에야 첫 책으로 인터넷을 매개로 벌어진 정치권의 권력다툼을 다룬 스릴러 소설 '시스템'(피뢰침북스 펴냄)을 냈다.

주씨는 또 지난 3월 목사 안수까지 받았지만, 건물로서의 교회에는 거의 출입을 하지 않고 예배 집전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몇몇 뜻 맞는 이들과 함께 히브리어와 희랍어 등으로 된 성경 '원전'을 강독하는데 그게 그의 '예배' 방식이다.

종교생활과 글쓰기를 함께하고 있다는 주씨는 "1945년 해방 전후를 배경으로 한 성정치학 관련 포르노그라피 소설을 마무리 짓고 있다"며 "올해 안에 꼭 출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작은 7월 중순께 한겨레출판에서 책으로 나온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사는 외국인·시민 "세계는 하나"

31일 전남대서 세계인의 날 행사

광주 '세계인의 날' 행사에는 외국인들의 장기자랑과 함께 '아름다운 나눔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광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가 마련된다.

광주시와 (사)광주국제교류센터, 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전남대 운동장에서 제2회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7년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을 기념해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로, 20일을 포함한 일주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하고 각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데서 출발했다.

행사장에는 네팔·베트남·스리랑카 등 10개 국가의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는 음식 장터가 운영되며 12개국 출신 외국인들이 실력을 뽐내는 세계인 장기자랑도 열린다.

또 한국문양탑본, 전통부채 만들기(국립광주박물관), 아시아 전통악기 전시·연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나무목걸이·소망나무만들기(광주 YMCA 꼼지락)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벼룩시장·아름다운 나눔장터도 운영한다.

그밖에 어린이 등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밀키 트왈라잇 등 밴드 초청 공연 등도 준비했다.

광주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행사 참석을 돕기 위해 행사 당일 하남 공단, 평동공단 등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062-226-27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라규채 사진전 '대숲은 空하다'

6월3~9일 서울 인사동 '이즈'

'대나무골 공무원 사진작가' 라규채씨가 오는 6월3일~9일까지 서울시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대숲은 空하다'전을 갖는다. 담양군청 홍보계장인 라씨는 이번 전시에서 대나무 숲의 일렁임을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을 선보인다.

짙은 초록을 발산하는 댓잎과 흔들리는 대나무의 잔상을 모두 담아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시인 고재종씨는 "대숲의 형태를 해체하는 것은 사실 해체가 아니라 대숲이라는 존재의 변함, 곧 무상함을 포착해 내는 행위이다"고 평했다.

라씨는 '바다의 숨결' '대나무 시리즈'전 등 4차례의 개인전과 '필름 속을 걷다' 전 등 20여 차례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무등산 들꽃 사진전' 등 사진집도 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숲은 空하다'